제285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78. 5. 7 (1)

예수 승천 대축일

기도서 P. 305
제1독서 (사도 1, 1 — 11절)
제2독서 (에페 1, 17—23절)
복 음 (마태 28, 16—20절)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지상명령과 신앙

이 태 주 신부

"당신들은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시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명시하심이요, 이 사명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교회와 그 일원이 해야 할 지상 명령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레아로 갔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보고 경배하면서도 그들 중에는 아직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사실 그것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인간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꾸만 의심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약점이다. 허지만 이 의심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은 신앙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의심이 없을 때 그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로서 신앙을 따지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차원은 인간의 차원을 훨씬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고백할 수도, 전파할 수도 없다. (고린토전서 12장 3절) 따라서 이와같이 거듭되는 의심을 주님 안에서 극복, 확고한 신심에 이르러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열성을 보일 수가 있는 신앙심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감정적, 일시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감정과 혼동하는 수가 있다. 물론 신앙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이지만, 결코 그 감정만으로써 신앙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참다운 신앙이란 자기의 전생명을 다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과 연결시키는 높은 이성의 경지에서 받아들여지는 생활태도이다.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며, 맹목적인 것이므로 어떠한 계기가 닥쳐 왔을 때 즉시 식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꾸준한 신앙안에서 그 신앙을 자신의 생활속에 실천화시킨 이성적 차원의 신앙은 어떠한 외부적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버리는 일이 없다. 순교자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에서 생활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맹목적, 감정적 신앙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함에 있어서 철저히 배제해야 할 신앙이다.

(용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주여, 용서하시고 비를 주소서.

주여, 비를 주소서.
당신의 대지가 말라가고 있읍니다.
당신이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작물들이 죽게 생겼나이다.
하기야 못자리판을 짓밟아버린 저희들인지라
주여. 먼저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들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나이다
어제는 혼분식을 했고, 7분도 쌀을 먹기도 했읍니다.
오늘은 쌀술을 마시고 있읍니다.
한치의 앞도 못보는 주제에 항상 께어 있지도 못하고 있읍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들은 놀라운 발전속에서 복된 나날을 살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을 선용하기 보다는 중성자탄이라는 무서운 인명살상 무기를 만들어 내기도 했읍니다.
경쟁을 벌여, 여기저기서 핵실험을 자랑하기도 했읍니다.
이제 당신이 주신 그 좋은 자연이 부서지고 있읍니다
가끔가끔 오만에 빠져 당신 위로 솟구치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가진자들은 없는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읍니다.
그래서 인천 동일방직의 쪼깐이들은 똥물을 뒤집어 쓰고 집에서 놀아야 했읍니다.
당신이 만드신 함평의 고구마들은 길바닥에서 썩어야 했읍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비를 주소서.
그래서 대자연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정신을 말끔이 닦아내시어 새로이 살게 하소서
쪼깐이들도, 탈장안의 형제들도 기쁘게 웃게 하소서.
주여, 비를 주소서.

숲정이 산책

한국 가톨릭 농민회

왜 단식투쟁을 했는가?

한국 가톨릭 농민회는 지난 4월 24일 오후 3시부터 광주 북동 천주교회에서 기도회를 갖고 그들의 요구를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4월 25일 12시를 기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그들의 요구는 「함평·고구마 피해액을 즉각 보상하라」「구속중인 유남선·정성헌 형제를 무조건 석방하라」「가톨릭 농민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인바, 그 가운데 하나인 소위 「함평 고구마 사건」만 4월 29일에 해결을 보았다.

〈숲정이〉는 제284호 3면에 농민회의 선언문을 보도하였던바, 이제 교형자매들의 이해를 돕고자 농민회의 목적과 현실등을 간추려 소개한다.

(※유감스러운 일은, 지난주 〈숲정이〉인 제284호가 인편으로 전해진 본당을 제외하고는 제날짜에 우송되지 않았음을 덧붙인다.)

1. 농민회의 목적

「본회는 농민 스스로의 단결과 협력으로 각 방면에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회칙 제3조)

「한국 가톨릭 농민회는 성서와 역대 교황 성하의 교훈에 따라 가난과 소지와 억압속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처지를 자각하고 스스로 멍에를 벗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78. 4. 26일자 전국 지도신부단 호소문)

2. 농민회의 활동

활동내용—① 농촌의 협동의식을 높이고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활동, ② 교육활동, ③ 연구 조사활동 ④ 홍보 출판활동, ⑤ 대변활동, ⑥ 유관단체와 협력.

「구성원의 민주적 협동에 의해서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밝은 농촌사회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읍니다.」(4. 26. 지도신부단 호소문)

3. 농민회와 현실

「그러나 농민회의 활동이 있는 곳에 노골적 탄압은 도처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읍니다. 농촌현장에서도 힘없는 회원에게 "불온" "용공성"을 운운하면서 부당한 사찰과 협박, 심지어는 구속까지 서슴치 않고 있읍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신용협동조합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까지도 농민회 회원이 중심으로 돼있다는 이유로 강제 해체시키는가 하면, 농촌 청년들로 구성된 분회에 대해서는 부모와 친척들을 동원 간교한 술책으로 활동을 마비시키고 있읍니다.

춘천교구하의 연합회에서는 농민회의 활동을 모르는 이들에게 소개지를 만들어 배부(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춘천교구 연합회 회장인 유남선 형제와 전국본부의 협동부장 정성헌 형제 등을 78. 4. 12일자로 구속 기소하였읍니다.

더욱이 76년 가을 전남 함평군 농협에서는 고구마 재배농가의 고구마 전량을 수매하겠다고 철석같은 약속을 해놓고도 수매를 기피함으로써 고구마 생산 농가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읍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집계 분석하여 76년 12월에 관계요로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이래, 저들은 갖은 공갈·협박·회유 등으로 여론을 무마하기에만 혈안이 되었을 뿐 피해보상에는 추호의 성의도 보이지도 않았읍니다.

(4. 26. 지도신부단 호소문)

4. 왜 무기한 단식투쟁까지…?

「차제에 지도신부단과 700여명의 농민회 회원들은 78. 4.24일 오후 3시를 기해, 전남 광주 북동 천주교회에서 윤공희 대 주교님을 모시고, 고구마 피해농가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구속중인 유남선 형제와 정성헌 형제의 무조건 석방·가톨릭 농민회에 대한 탄압중지 등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가졌읍니다.

그러나, 농협 전남 도지부에서는 만성적 기만술책으로 농민을 무시하고, 통제된 매스콤은 우리들의 정당한 외침과 요구를 외면하고 말았읍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만인에게 공개하고 문제해결의 협력을 구하는 길은 가두시위와 농성을 벌이는 길이라고 단정하고 지도신부단의 성명서와 회원들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함으로써 가두시위에 돌입했읍니다. 그러나 대기중인 기동경찰에 의해 무참히 저지당하고 78.4.25일 12시를 기하여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읍니다.」(4.26. 지도신부단 호소문)

5. 그 이후

4월 26일, 전국본부의 홍보부장 이상국 형제외 1명 연행 구금.

4월 27일, 농민회에 동참하는 광주 대교구 신부단의 결의문 발표. —「…관계당국은 관존민비의 관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가를 정당히 지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경찰이 북동 천주교회 주변을 완전 봉쇄하고 모든 사람의 교회 출입을 금하고, 심지어 미사에 참여하려는 신자들까지 교회출입을 막고 있는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단정한다.」

4월 27일 오후, 윤공희 대주교님은 단식 기도회장인 북동 성당에 들러 농민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

4월 29일, 함평 고구마 사건에 대한 공개사과로 고구마 피해보상 문제 일단락. 하지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은 계속.

5월 1일, 전국의 사제들 50여명과 목사 및 수도자, 평신도들이 남동성당에서 기도회 개최. 전국 농촌 인권 협의회(회장 이종창 신부) 결성.

5월 2일 오후 1시경, 당국에 연행 구금되었던 이상국 형제외 1명 석방으로 단식투쟁을 끝내고 해산.

※ 5월 8일 오후 8시, 춘천시 죽림동 천주교회에서 구속된 춘천 농민회장 유남선 회장과 전국본부 협동부장 정성헌 형제 석방을 위한 기도회 개최 예정.

제 6 회 · 장동주 문하생

피 아 노 연 주 회

때 : 78. 5. 13(토) 밤 8시 곳 : 전주 시민문화관

※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무료입장)

전화 ③ 3064

□ 5월은 성모성월 □

묵주의 기도 100만번의 예물

파티마 평화의 성모님께

이 영 희(다두)

파티마 평화의 성모 마리아
이 고장에 오시는 파티마 성모님
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묵주의 기도
100만단을 예물로 봉헌합니다
파티마 성모 성당 봉헌의 날
1978. 4. 14
천주교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에
파티마의 꼬미씨움

아베 마리아!

화창한 5월, 성모성월은 뜻없이 나날을 보내는 순간 순간을 묵주의 기도로 채워보도록 노력하는 계절입니다.

묵주의 기도는 성모님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고 적극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기도 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4일 전주교구를 방문하시는 파티마 평화의 성모님께, 성모님의 소망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100만번의 묵주의 기도를 예물로 봉헌하였읍니다. 묵주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바쳐 드리는 기도입니다. 길을 걸을때나, 여행할 때, 묵묵히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할 수가 있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미사전후 신자 공동으로 바치고 있읍니다.

묵주의 신비, 현의를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 우리 생활속에서 범하는 잘못의 용서를 빌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라고 주의 기도로 시작하여 성모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과 더욱 죽을때 빌어 주시는 성모송을 10번씩 바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묵주를 들고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개선 해 보려고 해도 잘되지 않은 생활의 개선과 속죄의 회개생활이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묵주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생활개선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묵주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곁에 계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묵주의 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레지오 마리에 꼬미시움 서기〉

어머니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김 명 숙(프란치스카)

모든 사람의 첫어머니가 된 에와는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여 그 후손들에게 원죄를 끼쳐 주어 인간을 불행하게 하였지만, 성모 마리아께서는 구세주 천주 성자를 낳아 우리 모든 사람을 구해주신 거룩하고 착하신 어머니십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난하게 사시고, 예수님을 기르시기에 갖은 고생을 겪으셨으므로 우리들의 어려운 사정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탁도 잘 들어 주십니다.

언제나 괴로울 때에는 성모님께 달려드십시요.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유감에 시달릴 적에는 성모님께 기구하십시오. 마귀의 유감을 짓밟아 주시고 깨끗한 영혼을 보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착한 일이나 기쁜일을 성모님께 바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천주님께서 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성모님의 따뜻한 품안에 안기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원평본당)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 금 님 찻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 원 준(야고버)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 인 트·집 찰

전 주 광 고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 감초당 약국 앞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 역 대 리 점 모 집
중 앙 설 비 상 사
전화 ③ 5614
전주시 금암동 710~11

★ 양심을 찾자 ★
현 대 칼 라 특 약 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 앙 사 진 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 건강 관리 센타 ◎

영 진 약 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③ 4577, 578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 1인당 최고액 무주본당의 170원, 전년대비 최고 숲정이본당의 261%

	78성금	1인당	전년대비		78성금	1인당	전년대비				
고 창	127,502	143원	128%	고 산	146,185	62원	97%	금산	159,325	121원	198%
김 제	—	—	—	삼 례	192,483	115원	102%	남원	143,580	113원	129%
부 안	135,170	77원	224%	여 산	132,605	90원	68%	무주	142,125	170원	203원
수 류	47,390	40원	85%	주현동	90,700	63원	64원	상관	86,695	95원	143%
신태인	101,040	45원	131%	창인동	367,140	156원	142%	순창	64,980	103원	55%
원 평	57,943	125원	—	황 등	—	—	—	임실	93,725	90원	99%
정 읍	347,260	138원	191%	노 송	239,503	82원	85%	장계	78,138	51원	110%
대 야	132,802	158원	133%	덕 진	108,650	51원	84%	장수	15,446	17원	—
둔율동	149,417	58원	114%	복 자	136,298	112원	72%	진안	—	—	—
용 안	151,840	132원	132%	서학동	—	—	—	한들	55,540	—	—
월명동	—	—	—	숲정이	109,656	137원	261%	기타	27,870	—	—
팔 마	140,900	122원	141%	전 동	—	—	—				
한 열	79,450	41원	101%	중 앙	205,126	62원	130%	계	4,177,974	69원	94%
화 산	111,470	89원	109%								

2. 주교님배 쟁탈 성직자 친선 테니스 대회(9일〈화〉 오전 10시, 원광대학교)
3.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10일〈수〉 오후 2시—13일〈토〉 정오, 가톨릭 센타, 회비 6,000원)
4. 조국을 위한 월요기도회(8일〈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타) **연합회 수녀님 동혜원 방문 감사합니다**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서 용 록
보좌 신부 정 승 현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복 석

1. 사도회 월례회—7일, 공식미사 후(강당)
2. 프란치스꼬 3회—7일, 오후 1시 30분
3. 견진교리(8월~12일)
   시간 : 오전 10시 오후 8시 30분
   지참물 : 성경, 성가집
4. 상지회 월례회—10일〈수〉, 오후 6시 30분
   지참물 : 묵주
5. 경로잔치—10일〈수〉 오후 2시(강당)
   참가대상 : 만 65세 이상 중앙본당 신자
6. 어머니 합창단 정기총회 : 11일〈목〉 오전 11시 (사제관)
7. 환자 영성체—11일〈목〉 오후 2시
8. 성심부녀회 월례회—12일〈금〉 어머니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130,233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록

1. 프란치스꼬의 집 축성식 : 오늘 오후 5시
2. 애령회 간부회 : 오늘 공식미사 후(간부는 빠짐없이 참석을…)
3. 축! 영세식 : 5월 13일〈토〉 저녁미사중
   대부모님은 7시까지 나오세요. 신자분은 참석 바람
4. 중노 1가 반회합 : 5월 8일—봉숭아반, 진달래반
   12일—채송화반, 난초반 많이 나오세요
5. 인후동 가정방문 : 5월 9일〈화〉
6. 신용조합 야외소풍 : 5월 14일 오전 8시 반 출발
   장소—덕진 왕능(미사 있음)
7. 주일학교 소풍 : 5월 14일 신용조합과 같이 갑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7,246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사도회 확대회 : 공식미사 후
   반장, 구역장, 공소회장, 사도회 임원 참석 바람
2. 주일학교 어린이 교리 : 주일 오후 2시, 미사 3시,
3. 미사시간 변경 : 주일 오전 10시 오후 3시, 8시
   평일—오후 8시 금요일 어머니미사—오전10시
4. 본당 야외미사 : 5월 14일 오전 9시 30분까지 본당 집합(단체로 감)

□ 지난주 봉헌금 : 65,90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 후
2. 본당 전신자 소풍 : 5월 14일 오전 9시반 출발
   장소 : 예수병원 서편 동산(10시 30분 야외미사)
3. 주일학교 소풍 : 5월 14일 오전 9시 출발
   장소 : 상관성당
4. 학생회 안내 : 매월 첫주(월례회), 둘째주(교리)
5. 오늘 1일교장 : 이기배(요비노)
   다음주 1일교장 : 최재홍(베드로)

□ 지난주 봉헌금 : 106,3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예수승천 야외미사 : 치명자산에서 집전합니다
2. L.M 옥외행사 및 전신자 단합대회 : 치명자산에서 개최함(특기자랑 및 반대항 노래자랑 있음)
3. 영세 예비자 특별교리 : 매일밤 8시에 있음

□ 지난주 봉헌금 : 52,57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1. 5월은 성모성월…매일 미사후 묵주기도
   (해당된 반원 전가족이 참석)
2. 예수승천 야외미사(전신자)
   장소 : 서신동 뒷산에서 11시미사(미사후 반별 오락회 및 시상식)
3. 전종근 사도회장님 전출관계로
   후임에 (이강노)회장님께서 선임되었읍니다
4. 여성 꾸르실료 희망하신분 사무실에 접수

□ 지난주 봉헌금 : 118,74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보좌 신부 유 종 환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예수승천 야외미사 : 오목대 오전 11시
2. 견진성사 예고 : 5월 21일(10시)
3. 파티마 성모상 파티마 성당으로—
   5월 13일〈토〉 저녁 8시미사
4. 사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5. 성화회 : 승천 야외미사 후(현지)
6. 예비자 : 일반 10시미사 후, 학생 8시 반 미사후
   젊은이〈수〉, 직장인〈금〉—8시 30분
7. 유아세례 : 다음주일 오후 2시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32,790원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신부 문 정 현

※ 파티마 성모상 환영미사 : 토요일(13일) 저녁 8시
1. 미사시간 안내
   ① 주일 : 오전 10시, 오후 8시 ②평일 : 오후 8시
2. 새살림이라 어려움이 큽니다
   ① 제의장과 주수상 ② 본당 사무실 비품 ③ 오르겐
   ※가장 긴급한 비품구비에 뜻 있으신 분은 본당 신부에게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3. 대학생 면접(5월 8—13일)
   본당신부를 찾아 주시거나 연락주세요(☎ ②7249)
4. 교무금 납입자 : 최종삼(5,000원)

□ 지난주일 첫 봉헌금 : 12,325원, 감사합니다

* 인쇄·전 주 보 광 출 판 사 * ☎ ③ 3272